

네 청춘은 저 산너머에

연변지식청년회고록

리결사 등 저



연변인민출판사

비 청춘은 저 안너머에

—연변지식청년회고록

리결사 등 저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학송, 김정옥

책임교정: 김홍화

기술설계: 정선숙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我的青春在那里: 朝鲜文 / 李洁思等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10
ISBN 978-7-5449-0446-9

I. 我… II. 李… III. 回忆录-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51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155640号

我的青春在那里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吉林市京源彩印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787×1092 1/16 印张: 26.5 字数: 42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446-9 (民文)

版次: 2008年10月第1版 2008年10月第1次印刷

印数: 1000册 定价: 30.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서 문

등 개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새로 펴내는 《내 청춘은 저 산너머에》라는 책은 일찍 연변에 하향했던 지식청년들의 회고록이다. 이 책에는 당년에 “지식청년들은 농촌에 내려가 빈하중농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호소에 항응하여 연변의 농촌에 내려가 단련을 받은적 있는 36명 지식청년들의 평범하지 않은 청춘경력이 실려있는바 중요한 사료적가치를 지닌다.

력사는 진실한 기록이다. 지식청년들이 겪은 력사는 응당 지식청년들 자신이 기록해야 마땅하다. 당년에 지식청년들이 변강에서, 농촌에서 겪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간고한 경력은 한줄기 귀전을 스치는 바람이 아니라 사책에 아로새겨진 진귀한 력사이다. 력사는 결국 후대들을 교양하게 된다. 지식청년들의 상산하향은 이미 지나간 력사가 되었지만 수천만 지식청년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아로새겨진 그 발자취를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 한것은 그들

이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청춘으로 그 역사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지식청년년대는 불행한 년대이며 또한 행운스런 년대이기도 하다. 그들은 간고했던 역사의 역류속에서 인생의 도리를 터득했다. 착오적이며 불행으로 점철된 고난의 세월에 의해 인위적으로 인생의 지향을 박탈당하고 지식의 바다에서 마음껏 배울수 있는 시기와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는 기회를 잃고말았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의 리상과 인생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속에서 사색하고 몸부림치고 분투해왔다.

이 책에서 보여지는 지식청년들의 진실한 이야기는 후세사람들에게 특수한 역사환경에서 어떻게 자기의 인생에 도전하고 사회에 대해 책임지느냐 하는데 대해 귀중한 역사참조물을 제공하고있다.

지식청년들은 역사의 풍우속에서 런마한 “결심을 내리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난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한 혁명의지를 오늘날에도 계속 발양하고있는바 이런 정신은 오늘의 중국이 현대화강국으로 발전하는 힘의 원천과 동력으로 되고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세기에 들어섰다. 아름다운 새 생활은 우리의 노력으로 창조해야 한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나는 광범한 독자들이 참답게 역사를 총화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포만한 열정과 게으름없는 분투로 새 연변건설에 더 큰 기여를 할것을 희망한다.

(필자는 중공길림성위 상무위원, 연변주당위 서기임)

序

邓 凯

延边人民出版社出版的《我的青春在那里》一书，是曾在延边下乡知青的回忆录。此书汇集了当年响应“知识青年到农村去，接受贫下中农再教育”的号召，到延边农村经受锻炼的36名知青的不平凡青春经历，有着重要的史料价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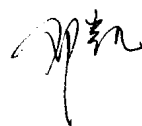
历史是真实的记录。当年知识青年经历的历史应由当年的知识青年来记录。当年，知识青年在边疆、在农村经受锻炼的血和泪的艰难历程，不是耳边吹过的一阵风，她已成为刻在史册上的珍贵史料。历史终会教育后来人。知识青年上山下乡已成为历史，但成千上万的知识青年不能遗忘那段刻在心中的印迹。因为，他们用自己最美丽的青春创造了那段历史。

知青年代是不幸的年代，又是幸运的年代。他们在艰难的历史逆流中懂得了人生的道理，他们在错误的、不幸的艰苦岁月里被人为地剥夺了人生的志向，耽误了健康的学习和成长的机会。但他们在扭曲

的历史舞台上并没有抛弃自己的理想和人生的理念，而是在苦难中思考、挣扎、奋斗……这些真实的故事，将给后来人在特殊历史环境下如何对自己的人生提出挑战，为社会负责，提供了可贵的历史参照物。他们在那段历史的风浪中，“下定决心，不怕牺牲，排除万难，去争取胜利”的革命意志，如今更加发扬光大，成为中国向着现代化国家发展的力量源泉和动力。

当前，我们已进入了新世纪，新的美好生活需要我们去创造。以此书的出版为契机，我希望广大读者以饱满的热情和不懈的努力，认真回顾过去，总结历史，展望未来，为建设新延边做出更大的贡献。

吉林省委常委、延边州委书记



2008年10月23日

차 례

서문	등 개	1
序	邓 凯	3
두번째 고향에서	리결사	1
연변에 살리라	석명성	5
실망과 희망이 동반되었던 그때 그 시절	김영춘	14
그 소들이 그림다	채영춘	24
막차로 잡아탄 “지식청년호렐차”	조룡호	34
집체호시절의 이야기	림혜영	44
연변의 시골에 오던 날	김덕선	51
광활한 천지에서	강순화	60
청호(淸湖)에 남긴 나의 추억들	김순녀	71
꿈이 꾸르던 시절	김경애	78
빨래줄에 걸린 팬티	김운걸	105
“로싼제(老三届)” 영탄곡	김관웅	110
초년고생은 금 주교도 못 산다	김호웅	124
소에 대한 이야기	김철송	137
먹자주의	리광수	142
열아홉살 량만의 시절	리경자	149
한 “머저리총각”의 실련기	리봉은	162
선경대아래 첫 마을	박복만	168
“집체호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박학립	173

내 청춘은 저 산너머에

잊을수 없는 그 시절	방순애	177
기적소리 들리는 그곳은	백진숙	185
그때 그 시절 후회는 없다	손룡호	205
봄날에 평봉산에 올라서	신영애	214
한 지식청년의 고백	장 련	220
밭이랑에 묻고 온 청춘시절	조성희	226
목욕한 물에 삶아먹은 돼지고기	조일남	243
가슴에 심어둔 정서	진설홍	248
심산골에서 흘러보낸 세월	진원성	254
내 이름으로 너를 불러본다	차순복	265
집체호에서 보낸 나날들	채선애	278
정열이 넘치던 그 시절	허영순	290
꿈이 덮쳐들었을 때	한정남	301
잊을수 없는 심산골에서의 지식청년생활	현광식	307
도난당한 젊은 날의 추억	우광훈	313
청춘의 언덕에 묻고 온 칠색추억	황칠룡	326
지식청년운동에 대한 사고	최홍일	388
지나간 일은 그리운 법	김관웅	404
편집후기		414

두번째 고향에서

- 잊을수 없는 지식청년시절의 기억

리결사

나는 상해의 한 평범한 노동자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때 살림형편이 가난하였지만 그로 하여 나는 괴로움을 참고 힘든 일을 견뎌내며 어려움을 박차고 나갈수 있는 정신과 풍격을 소유하게 되었다.

중학교를 졸업한후 나는 우수한 성적으로 상해 복단대학 부속중학교에 진학했다. 바야흐로 대학꿈을 익혀가고있을무렵 “문화대혁명”이 터졌다. 농촌으로 내려가라는 호소에 항응하여 그때의 상해지식청년들과 다름없이 나도 농장에 가서 농업노동자가 되느냐 아니면 농촌에 내려가서 농민이 되느냐 하는 두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다. 나는 망설임이 없이 후자를 택했다. 가슴에 큰뜻을 품고 변강으로, 조국이 제일 수요하는 곳으로 가자! 나와 동창들은 큼직한 중국지도 앞에 모여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찾고 찾았다. 그렇게 찾은 곳이 바로 조국의 제일 동쪽끝에 자리잡은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였다. 1969년 3월 1일, 나와 16명의 동창들은 “변강을 건설하고 변강을 보호하며 광활한 천지에서 큰 사업을 벌리자”는 원대한 이상과 포부를 지니고 당시의 길림성 훈춘현 경신향 이도포촌에 내려가서 자리를 잡았다.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소속해있는 훈춘시 경신향은 중국, 로씨야, 조선 3개 나라와 름접해있는 곳이다.

개혁개방후 동북아의 금삼각에 위치한 독특한 지리적우세, 세상

에 널리 알려진 장백산자연경관, 독특한 조선족의 풍토인정 그리고 “한눈으로 3국을 바라보고 개울음소리 3국에 들린다”는 국경지대의 특색으로 하여 이곳은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어 국내외의 많은 유람객들을 끌고있다. 하지만 당시 이도포촌은 매우 폐쇄된 곳이었다.

이른봄 3월, 봄추위가 살결에 스며들었지만 조용하던 변강농촌은 경사스러운 분위기로 흘러넘쳤다. 소박하고 선량한 촌민들은 꿩고리를 치고 복을 요란하게 울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조선족특유의 방식으로 머나먼 타향에서 온 우리들을 열정적으로 맞아주었다. 두눈이 실명한 늙은 “아메”(조선어로 할머니라는 뜻임)는 따뜻하나 투박하고 피줄이 아롱아롱한 손으로 지식청년들의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지면서 입으로 설새없이 되뇌이였다.

“애들아, 나의 훌륭한 아이들아!”

타향으로 왔으나 조금도 낯선감이 없었다. 천리밖에 계시는 어머니를 눈앞에서 만난듯 두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실 끊어진 구슬마냥 줄줄 흘러내렸다. 이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나의 뜨거운 마음은 이 고장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졌다.

5월에 접어들자 분망한 모내기가 시작되였다. 마침 내가 집체호의 밥을 지을 차례가 돌아왔다. 집체호식구들의 밥을 지을 때면 밭일을 하지 않아도 되였지만 남에게 뒤지기 싫어하는 나의 고집만은 어쩔수 없었다. 결국 나는 날마다 새벽 두시 반에 살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밥을 지어놓고 4시에 남들과 함께 논으로 가서 모내기에 나섰다. 웅근 하루 모내기를 하고 세끼밥을 짓는외에 생산대의 야간학습에까지 참가하노라니 잠자는 시간은 불과 몇시간밖에 안되였다. 사흘은 용케 견뎌냈지만 끝끝내 지나친 피로로 몸져눕게 되였다. 런 며칠동안 토하고 설사하며 고열이 내리지 않았다. 마을의 조선족“아마니”(조선어로 어머니) 김금강이 소문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왔다. 죽을 췌고 밥을 지으며 낮에 밤을 이어가면서 나의 신변을 지켜주었으나 병석에 누운 나는 아무것도 먹을수 없었다. 안간힘을 써가며 뭘 조금이라도 먹기만 하면 도로 토해냈으므로 어머니는 애간장을 태웠다.

“결사야, 밥을 먹어야지.”

어머니는 고열로 정신이 혼미해진 나를 가볍게 불렀다. 눈을 떠 보니 어머니가 김이 무럭무럭 나는 사탕가루를 탄 닭알탕을 들고 있지 않는가. 나의 눈은 눈물에 젖어 흐릿해졌다. 마을의 촌민들은 집집마다 닭 몇마리씩 길렀지만 식탁에서는 닭알을 구경조차 할수 없었다. 그때만 해도 닭알은 촌민들이 돈을 바꿀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으니깐.

“어머니, 전 괜찮아요. 도남(어머니의 작은아들)이에게 먹이세요.”

“그 애들은 이미 먹었네. 자네, 어서 먹게나.”

어머니는 조용히 타이르다가 점점 여위여가는 나의 불을 쓰다듬으며 가슴 아파하였다.

며칠동안 병마의 시달림에 모대기면서도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은 나였지만 그 순간만은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이도포에 금방 내려왔을 때 나는 어머니네 집에 하숙을 정하고 이불짐을 풀었다. 30살에 과부로 된 어머니는 아들이 태어나자 남편이 저세상으로 갔기에 혼자서 3년1남을 키우면서 어렵게 삶을 영위하고있었다.

얼마전의 어느날 어머니가 제일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 심하게 앓았다. 9살에 나는 아들이 닭알을 삶아달라고 가냘픈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마음을 도사려먹고 닭알 한알도 삶아주지 않았다. 어머니의 자애로운 눈길이 마음에 와닿는 순간 나는 눈물과 함께 닭알탕을 입에 떠넣었으나 감격에 목이 메었다...

소박하고 선량한 연변인민은 자애로운 어머니마냥 이 남방처녀를 가슴에 따뜻이 품어주었다. 이 고장은 나의 두번째 고향으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이 고장 인민들은 나와 친지로 되었다. 게다가 나의 부지런한 사업과 게으름 없는 노력은 당과 인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1970년 9월, 나는 영광스럽게 중국공산당에 가입했고 그달에 훈춘현부녀연합회에 전근되어 사업하게 되었다. 떠날무렵 나의 입당소개인인 김금강어머니는 선물로 당규약을 정중하게 주었다.

덧없는 세월이 흘러 38년이 지나갔다. 나는 지금도 이 당규약을 소중히 간직하고있다. 연변인민들의 배려와 사랑, 양성과 교육으로

내 청춘은 저 산너머에

나를 떠밀어주었기에 상해의 애송이처녀가 오늘날 자치주 상무부주장으로 성장할수 있었다.

38년 동안 나는 자기의 모든 정력과 재질을 이 땅과 이곳의 인민들에게 바쳤고 변강의 경제번영과 사회온정에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몇년래 연변인민들은 나에게 두터운 신임과 허다한 영예를 주었다. 나는 전 주 경제발전의 지도와 조화 사업을 감당하였다. 2005년에 또 전국“민족단결진보”모범으로 당선되는 영예를 지녔다.

북국의 장백산은 연변인민의 자랑이자 나의 자랑이다. 나는 이 땅을 사랑하고 이곳의 인민을 사랑한다. 이곳의 땅과 물, 이곳 인민들이 영양과 광활한 천지를 주었기에 남방의 애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무성한 나무로 자라났다. 중국속담에 “떨어지는 잎은 뿌리로 돌아온다”고 하였지만 나는 이미 연변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었다.

리결사략력

1948년 3월 출생, 한족, 상해사람.

1969년 3월 길림성 훈춘현 경신향 이도포촌에 하향.

1970년 9월 중국공산당에 가입.

1986년 중국부녀련합회 간부관리학원 졸업.

1973년 훈춘현부녀련합회 주임, 연변조선족자치주부녀련합회 부주임, 중공연변주위 조직부 부부장, 주정부 부비서장, 부주장, 중공연변주위 상무위원, 상무부주장을 역임.

연변에 살리라

석명성

1969년 3월 14일 팽포역은 시끌벅적했다. 나는 우리 반의 진전량과 함께 지식청년들을 만재한 북행열차에 올라 상해를 떠났다. 그때까지 우리는 1만 8,000여명의 같은 운명을 지닌 상해지식청년들이 조국의 동북변강-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가서 자리잡는다는 것을 감감 모르고있었다.

30여년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다. 대부분 상해지식청년들은 이곳을 떠나갔지만 아직도 몇백명 상해의 로지식청년들은 나처럼 연변에 다 보금자리를 틀고있다.

농촌에 하향

우리는 장백산 험산준령속의 황구령기슭에 자리 잡은, 10여세대가 웅기종기 모여 사는 한 가난한 산간마을에 하향하였다. 이 생산대는 가난하지만 “복합”이란 듣기 좋은 이름을 갖고있었다. 우리가 금방 하향했을 때 생산대에는 집체로 거주할만한 집이 없었다. 하여 잠시 촌민들의 집집에 짐을 풀다보니 동북산구 농촌의 농민생활을 직접 체험할수 있었다.

우리 집체호의 15명 지식청년중 5명은 녀성이다. 모두 67년급 학생으로서 중학교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17살, 18살의 나이에 인생의 운명에 도전해야 했다. 시간이 흐른 오늘날 그 잊을수 없는 변강산구의 시골생활을 되돌아보면 아련한 기억에 젖게 된다.

우리가 농민들을 따라다니며 동북의 여러가지 농사일을 배우는것이 지식청년생활의 첫 수업이었다. 곡괭이로 돌덩이처럼 땅땅 언 소똥을 땅에서 뜯어내는 일부터 낮으로 소나무껍질을 벗기기, 비탈밭에 파종하는 일과 모를 솟아주는 일, 수전에서 모내기, 김매기까지 닥치는대로 일을 하였다. 이른새벽이면 집주인을 도와 장작을 패고 물길기에 나섰으며 밤에는 등잔불밑에서 촌민들이 우리에게 정해진 공수를 기입하였다. 한창나이인 우리는 세상물정을 모르고 그저 걱정에도들며 고생이 뭔지 몰랐다. 다만 날마다 반복되는 농사일만 하게 되니 앞날을 생각하면 전도가 막연하게만 느껴졌다.

그무렵 하루는 생산대에서 멀지 않은 북만림산작업소에 가서 애목을 심게 되었다. 나무심기를 가르치던 간부 같아보이는 중년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다.

“애목들은 자라서 재목이 되면 산을 떠나간다네. 자네처럼 도시에서 온 젊은이들도 기동감이 되면 떠날거네.”

그때만 해도 그 말속에 담긴 뜻을 미처 몰랐다. 썩 후날 나의 발전과 변천은 그가 말한것과 완전한 일치를 가져왔다.

집체호에서 호장노릇을 했던 덕분에 이듬해 9월 나는 로동자모집에 추천되어 연변조선족자치주 수부 연길시의 한 국영기대수리공장에 배치되었다. 이렇게 나는 첫 사람으로 집체호를 떠난 지식청년이 되었다. 나는 변강의 자그마한 도시에 삶의 터전을 옮기고 17년간 공장에서 들끓는 생활을 해왔다.

나는 북합촌을 떠난후 1971년 음력설에 한번 갔다왔을뿐이다. 그뒤로 집체호의 상해지식청년들은 룽속 로동자로, 대학생으로 추천받아 도시에 돌아갔으나 사슴사양장의 종업원에게 시집간 녀지식청년만은 산골을 떠나지 못했다. 후에 사슴사양장에서 가정도급제를 실시하여 조건이 좋아지자 그녀 역시 상해로 돌아갔다.

20년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다. 연변조선족자치주정협에 사업터를 옮긴 나는 우연한 기회에 안도현정협의 김영철주석과 함께 만보향으로 조사연구를 가는 길에 북합촌에 들리게 되었다. 나는 김영철주석과 같이 어제날의 집체호를 돌아보았다. 집은 예전과 다름없는 흙집

이었으나 지봉의 벼짚이영이 기와로 바뀌었다. 집주인은 당년에 우리를 명월진에서 마중하여 복합으로 데려온 촌의 로당지부서기였다. 늙은 량주는 내가 떠나간후의 일들을 흥미진진하게 들려주었다. 20여년이 지난 오늘 그때의 일은 까마득한 옛말로 되었지만 당년에 15명 상해지식청년들이 복합촌에 자리를 잡았던 기쁨과 슬픔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을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었다.

1995년후부터 내가 주정협판공실에서 근무하게 되자 상해에서 온 사람들을 망라한 각지의 손님들을 배동하여 장백산관광을 할 기회가 많아져 복합촌을 자주 지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루 다 형언할수 없는 느낌이 내 가슴을 뿌듯하게 하고있다.

견습공으로부터 간부로

생산대에서는 나의 이불짐을 소수레에 싣고 복합에서 30리 떨어진 안도역까지 바래다주었다. 그때서야 먼길을 떠난다는 감각이 들었다. 필경 나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시혁명위원회의 공업교통위원회에 찾아가니 로동자모집일군이 나를 데리고 공장으로 갔다. 나의 마음은 미래의 생활에 대한 동경으로 부풀었다.

나와 함께 공장에 들어간 17명 지식청년가운데서 상해지식청년은 2명, 장춘지식청년은 3명, 나머지는 모두 당지의 지식청년들이었다. 우리 앞서 공장에는 할빈공업대학, 장춘공학원, 장춘광학정밀기계학원의 대학생들과 연변의 중등전문학교 학생들이 들어갔다. 물론 생각이 단순한 우리들은 대학생이나 중등전문학교 학생이나 할것없이 공장에서 일을 하니 공부를 많이 해도 우리와 별다름이 없다고 여겼다. 하다보니 나처럼 로동자로 된 지식청년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한편 고급기술공을 목표로 삼고 견습공답게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히 급별이 높은 완성공들을 숭배하면서 고급기능공으로 될 꿈만 무르익혔다.

당시는 “문화대혁명”이 한창일 때였다. 공장에서도 군대식으로 직장을 패라 하였고 직장장을 패장이라고 하였다. 우리 견습공들은 군인들처럼 야영훈련을 하였고 방공굴을 뚫으며 비판과 적발을 목적

으로 한 대자보를 쓰기도 하였다. 그때 공장장이었던 류전경은 로동자모집에 추천되어온 지식청년들이 공장에 들어오자마자 소집한 사상교양회에서 우리에게 밤에 꿈을 꾸어도 모주석을 보는 꿈을 꾸라고 역설하였다. 정치제일을 고취하던 그 시절 우리들은 들끓는 정열로 완성공들한테서 기술을 배웠고 하루빨리 기술을 장악하려는 일념 밖에 없었다. 한것은 견습기가 차면 로동계급의 일원으로 되기때문이었다.

그런데 1972년 17명의 지식청년들가운데서 한 녀지식청년이 추천을 받아 길림대학에 가자 고요하던 수면에 세찬 파문이 일었다. 나도 대학에 가려는 욕망이 간절했고 그리하여 일부 초중, 고중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였다. 책더미속에서 교과서를 찾아 다시 펼쳐드니 초중 2학년 공부밖에 하지 못한 나에게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한 숙사에 들었던 김동휘(후날 연변인민출판사 사장을 담임했음)선생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예상외로 대학에 응시할 기회가 빨리도 왔다. 1973년 7월, 공장에서는 나를 선발하여 대학시험에 참가하도록 결정하였다. 미리 대학 입시준비를 한것이 천만다행이었다. 하지만 생각밖으로 시험과정에 작문제목이 변하여 우리들이 응부할수 없게 되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장철생의 “나의 공백답안지”사건이 생겼던것이다. 뜻밖의 사건으로 나는 희망이 물거품으로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과연 일은 예감대로 번져졌다. 몇년이 지난후에도 이 일을 생각하노라면 그때의 진학기회를 놓친것이 유감스럽고 중등전문학교에 지망을 쓰지 않은것도 후회되었다.

이 일은 나에게 배움의 욕망은 물론 정신적타격까지 안겨주었다. 견습기가 찬후의 몇년 동안 나는 대학시험방면의 공부를 포기하고 기술상에서의 진보만 념두에 두었다. 그즈음 기숙사 친구들은 결혼하고 전근을 하다보니 나중에 나 혼자만이 외로이 기숙사에 남았다. 고독하고 막연하기 그지없었다. 한때는 남방으로 전근할 궁리로 인맥을 통해 노력도 해보았다. 상해에 있는 친척은 나를 도와 교통부소속의 강음조선소에 련계를 달았지만 무슨 원인인지 성사되지 못했다.